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4월 30일 (제89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 우 컬 럼

중보기도의 위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전2:1~2).

이 말씀을 한 마디로 하면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씀이다. 중보기도란 이웃을 위한 기도로, 위 말씀에서처럼 '도고(禱告)'라고도 한다.

나는 중보기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같이 힘든 목회 32년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과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그 기도가 있어서 앞으로 나의 30년이 기대 된다. 나는 그 기도를 100% 믿는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엡6:19)고 했다. 왜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했을까!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기에 그 힘이 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로 롯을 구원했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미국 텍사스의 야구 감독 풀러튼은 선수들의 야구 방망이를 모아가지고 교회 새벽기도회에 가서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여 최하위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다. 맥아더 장군은 어머니와 가족의 중보기도로 40년 전쟁 속에서 무탈하며 승전보를 날렸고,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기도로 성자가 되었다. 또한 펠레의 어머니와 가족의 중보기도가 펠레를 축구 황제로 만들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강하게 역사하신다. 병든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친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더불어 우리 문제도 속히 해결해주실 것이다. 아멘!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올해 초 한 꿈을 꾸었다. 목사님께서 올해는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시겠다며 당분간 해외집회는 잡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후로 기억된다.

꿈에 우리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로버츠(Roberts) 목사 일행과 콜롬비아(Colombia)의 고메스(Gomez) 목사 일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바람에 우리 영접 자원들이 총출동한 상태였다. 그들은 이초석 목사님이 해외로 오시지 않으니 우리가 한국으로 왔다며 목사님과 함께 집회할 장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마땅한 곳이 없으면 건물을 짓겠다거나 집회장소로 사람들을 운송할 셔틀버스를 알아봐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일행 중에는 실제로 이동거리와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반도 긴장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결정에 따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며 해외집회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 보니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10여 년 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쪽에서 들은 이야기다. 현재 세계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종들이 많지 않은데, 손으로 꼽자면 서구 쪽에서는 본케(Bonnke) 목사이고 아시아권에서는 이초석 목사라는 거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같은 아시아권이기도 하고 심정적으로도 이초석 목사에게 더 끌려왔는데 이번에 직접 목사님을 가까이 만나보니 참으로 능력의 종이며 인간적으로도 너무 소탈하다고 했다. 보통 이 정도의 큰 종들은 가까이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대하기도 껄끄러운 점이 많은데, 이초석 목사님은 참 인간적인 분이라며 좋아했다.

목사님의 오랜 해외집회 역사 가운데 유독 중앙아시아 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추후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KGB의 조사를 받고 재판정에 불려가 판사로부터 추방령을 선고 받고 국외로 내쫓기기도 했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떠나는 목사님과 헤어지기 아쉬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던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있게 될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며칠 전 멀리 벨라루스(Belarus)의 수도 민스크(Minsk)에서 연락이 왔다. 지난 2007년 한국의 영성세미나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 벨라루스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던 슬라바(Slava) 목사이다. 당시 벨라루스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비자발급이 안 되는 바람에 집회를 열지 못했었다. 그리고 2011년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벨라루스 목회자들을 데리고 방문했던 그는 여전히 정부의 기독교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었다. 그는 매년 크리스마스면 부부의 이름으로 목사님께 예쁜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오곤 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인연을 인연으로 아는 인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맞서 계속 기도하며 교회를 지킨 결과 결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번에 교회도 새로 건축하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싶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과의 비자문제도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단기간 방문은 비자가 면제되었다고 한다.

지난 2011년의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는 동유럽 교회를 영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목사님은 건강만 찾으면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며 식지 않은 전도의 열의를 불태우고 계신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 30대 기력을 되찾아 120세까지 장수하시며 새로운 30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써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뿌린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있다. 목사님께서 지난 27년 동안 전 세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된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목사님의 건강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5:1~2)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 지혜다

몇 해 전 성도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한 집사님이 억울하다며 제게 상담을 왔습니다.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지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이 집사님이 장사 터가 좋은 곳을 알아냈는데, 그걸 가장 친한 집사에게 자랑삼아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보증금을 구하는 사이에 친구 집사가 그만 먼저 가서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 일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졸지에 몫 좋은 장사터를 빼앗긴 집사님은 내심 제가 당신의 편이 되어 싸워주기라도 바라는 듯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집사님, 그건 집사님 잘못입니다. 왜 일이 성사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자랑을 합니까? 그런 건 누설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친해도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입단속을 잘하십시오. 집사님이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잠25:2).

지혜가 최고의 병기와 전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큰 축복을 예비해놓으시고, 그것을 꿈이나 이상을 통해 계시하십니다(고전2:9). 하나님이 이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개인에게 비밀로 붙이시는 것은 그것을 가로채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네방네 나발 불고 다닌다면 어찌 되겠습니다. '다 가져가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아는 놈이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다 말하니까 알고 훔쳐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보여주다가 발등 찍히는 겁니다. 고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속까지 다 보여주지는 말아야 하고, 다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집사님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나발 불어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맘속에 조용히 간직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셉은 곧바로 형제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는 요셉이 미워죽겠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창37:8).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왕하20:15). 곧 죽으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여 수명을 15년이나 연장 받은 히스기야가 신이 났나 봅니다. 그만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의 사자에게 군기고와 내탕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며 자랑 합니다. 그 결과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왕하20:17~18)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소렉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알 리 없는 삼손은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계속 묻자 죽을 만큼 번민하다 결국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삿16:15~17). 이 비밀누설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자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삿16:18~22).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백세에 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아내에게조차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어미가 자식을 죽인다는 데 순순히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사흘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을 묶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히 이를 만류하셨고, 이에 탄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 곧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22:17)는 대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서 품삯대신 앞으로 낳을 얼룩덜룩한 양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에 옮겨 거부가 되었습니다(창30).

하나님도 함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조차 말씀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13:44). 우연히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했다면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 그 밭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한다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오픈해놓고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행정목사도 모르게 저 혼자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그르칠까봐서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면 동시에 악한 것들도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친구에게 여자 친구를 자랑하다가 빼앗겨 이를 득득 가는 자들을 봅니다.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내 여자가 되기 전까지는 나보다 잘난 친구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도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을 회식자리에서 슬쩍 한 마디 했다가 순식간에 도둑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정보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국가마다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철통보안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나 꿈, 정보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일을 이루기까지 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고 하셨습니다. 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뼈가 있으나 뼈가 없는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입방정으로 남의 것이 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진리는 길이다

대학을 가리켜 진리탐구의 도장(道場)이라 한다. 그러나 역사상 수많은 대학이 서고 박사가 수백만 명 쏟아져 나왔어도 '이것이 진리'라는 통쾌한 결론은 아직 없다. 진리라고 믿어졌던 수많은 자연과학의 정리(定理)나 공리(公理)들은 보편성을 가진 것이 아님이 속속 드러난다.

진리란 자연법칙과 반대되는 초자연법칙을 말한다. 자연법칙은 생로병사(生老病死), 생자필멸(生者必滅)을 말한다. 율법은 이러한 자연법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사람은 죗값 때문에 해산의 수고와 고생 않고는 먹을 수 없고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에 매이게 되었다고 율법은 말한다.

폭풍만난 뱃사공을 보고 과학은 초속 몇m의 바람과 파고 몇m이니 그 배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율법은 '아! 저 뱃사공은 죗값으로 죽는 구나.' 한다. 그런데 진리가 오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다.

문둥이를 보고 의학은 문둥병균이 어느 정도 퍼졌다 하고, 율법은 죗값이라 하나 예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진리이다. 자연법칙은 사람은 늙으면 죽게 마련이라 하고, 율법은 죗값으로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새 법이 나왔다. 이게 진리이다. 성경에 세상의 논리로 볼 때 모순되는 모든 부분은 진리가 나타난 부분이다. 율법에 없었던 부분을 예수가 오셔서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셨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제는 누구나 예수이름으로 진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죽었지만 진리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율법으로 죽을 것이나 진리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진리는 우리를 율법, 자연법칙,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의 결국은 그 본질이 거짓이며 생명이 없다. 반드시 속이려는 고의만이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이치 역시 속이는 거짓이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치가 인류에게 크게 공헌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욕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진보가 없고 자신들의 불신앙과 무능함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것도 이 진리부분, 즉 초자연적 부분을 도우려 오셨다. 성도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아름다운 인생 ::

시간을 아끼는 지혜의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SNS 또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루 24시간이 너무나도 짧게만 느껴지고 하루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활용이 안 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하다 총회장 목사님과 이시대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고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고, 일기를 쓴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사고의 개념이 바뀐다는 말씀도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바뀐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책들부터 다 읽자'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동하면서 휴대폰이 아닌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책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책을 읽는 시간이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보다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통해서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은 것들과 노하우들을 적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앞서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왜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은성
es2563@naver.com

:: 세상을 보는 창 ::

기도의 진검 승부

'진검승부'라는 말은 검도에서 목검이나 죽도가 아닌 진짜 칼로 승부를 낸다는 말이다. 즉 진검승부는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생활에도 진검승부가 있다. 가수는 토크쇼에서 유머로 웃기기보다는 노래로 승부해야 하고, 영화배우는 몸짱, 얼짱이 아닌 연기로 승부해야 한다.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이나 고객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고, 식당은 음식 맛으로, 학생은 공부로 승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눅 22:42)라고 기도하심으로 진검승부가 기도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기도의 진검승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일상에서 기도를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기도의 진검승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압도하셨다. 그 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셨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약1:19~20).

셋째, 기도의 짐을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짐을 짊어지셨다. 복음전도자 레오나드 레이 브힐은 "등이 굽더라도,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외쳤다. 존 낙스(John Knox)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 시대는 기도의 짐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평생 기도 훈련을 쌓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승리하지 못한다.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계획하고, 감정을 압도하고, 기도의 짐을 질 줄 아는 기도의 진검승부사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귀를 기울이세요 ::

주여! 주여! 주여!

한 케냐 선교사가 있다. 그의 이름은 '유니스(Eunice Newcomb, 한국 이름은 임은미)'.

그녀가 자신의 선교활동지 르무르 지역 고지대 차밭을 지나갈 때, 아래 지역에 있던 꼬마들이 선교사가 반가운지 뛰어와 목청껏 그녀를 부른다. "유니스~~". 이들은 그녀의 이름만 부를 뿐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쟤네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네. 신발을 사줘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 또 꼬마들이 선교사를 부른다. "유니스~~." 그러면 선교사는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하는데… 빵을 사줄까?' 라고 생각한다. 연거푸 꼬마들이 "유니스~~~" 하고 부르면 선교사는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학교도 좀 지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니스 선교사에게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꼬마들이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사주게 된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가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주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아서다. 아이들이 유니스 선교사를 부를 때, 목청껏, 최선을 다해 그녀를 불러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인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회복인지,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은 분명 다 알고 계신다. 당연히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지만, 삶이 너무 벅차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면 그냥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보자.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환갑 여학생

하와이에 온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 주립대에 있는 랭귀지 프로그램을 듣고 있어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교환학생으로 온 대학생들이지만, 저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은 한국나이로 올해 59세인 일본인 아주머니예요. 작고 왜소한 체구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을 사용하는 게 약간 불편하신데도 영어를 배우러 혼자 여기까지 오셨다네요. 외국에서 유학 중인 작은 딸이 영국인과 만나고 있어서 곧 영국인 사위와 사돈이 생길 거 같아 어학연수를 오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어서요. 멋지지 않나요? 더 멋진 건 2년 전 그러니까 57세 때, 운영하던 빵집을 접고 순수미술을 배우려고 2년 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대요.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라서 영어를 못해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웃으며 더듬더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녀는 강의실에서 가장 밝고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1,2년 후 그녀는 또 무엇을 배우고 도전하며 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며칠 전엔 수업이 끝나고 참여한 소모임에서 어떤 한국인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무 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강요로 이곳에 오게 되었대요. 영어를 잘 못해서 랭귀지 스쿨부터 다닌 후 하와이 주립대에 진학하는 게 부모님이 원하는 목표라더군요. 억지로 이곳에 오게 되어서인지 이 학생은 하와이에 있는 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이 있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요. 모두가 꿈꾸는 이 천국 같은 곳에서 그 학생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영어 걱정이였던 제가 혼자 집을 구하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통장을 개설하고 책을 빌리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하나하나 다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영어를 포기한 건 중학교 1학년부터였는데요.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들이 "너희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라고 하시면 저는 항상 속으로 "괜히 희망고문하지 마세요. 전 이미 늦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 제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면 콧방귀 뀌며 대꾸했지요. "아니, 난 이미 늦었어."

그런데 지금 10대, 20대 때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30대가 된 제가 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땐 늦은 줄 알았던 것들이 지금은 아직 늦지 않은 줄 알게 되었지요.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변화에요.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고르실 때에 그들에게 몇 살인지 묻지 않으셨어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무엇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루고 망설이고 있는 그것을 2017년엔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참된 깨달음 ::

말이란?

'말씨'란 말이 있지만, 말이야 말로 '씨'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의 결과이자 장차 올 것의 원인이 됩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알아야 하는데, 과거 속에 현재의 원인이 있고 현재 속에 미래의 현상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예언적인 힘이 있어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말 그대로 마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인정은 하되 그것에 얽매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의 알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말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다, 자신 있다, 사랑한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믿는다, 힘이 난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정말 신바람 나게 그대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좋은 거야. 고통은 좋은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려면 고통이 좋다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숨이 막히는 고통이었지만 되돌아보니 기막히게 좋은 것이 된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고통도 훗날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잘 견디어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에 캄캄함이 있는 것은 의상을 갈아입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에게 캄캄함이 있는 것 또한 축복의 옷을 갈아입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 시간 "고통은 좋은 거야." 라고 되뇌며 고통의 경계를 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어느 날 중학교 생물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그렇다고 보아야지." 학생이 질문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숭이의 몇 대 손입니까?" 선생님이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온 학생에게 선생님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학생이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자 당황한 선생님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한번 보여주렴.", "선생님은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그럼 그 정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옛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치료기와 자외선 살균기가 있고 방사선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건강한 눈 건강법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눈이 가장 피곤한 시대에 눈에 좋은 건강차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눈의 피로에는 결명자차가 최고의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다만 몸이 찬 체질의 경우에는 결명자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차를 마시면 더 효과가 좋다. 특별히 눈이 자주 피로하다면 다음의 원인 중 어떤 것인지 찾아내어 알맞은 차를 음용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 눈이 피로하고 흐려지면서 머리가 무겁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세가 동반될 때는 창출을 하루 4g씩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하루 두 번 차로 마시면 눈 주변의 수분이 소변으로 잘 배출됨으로써 혈액이 맑아지고 눈의 피로가 줄어 머리가 맑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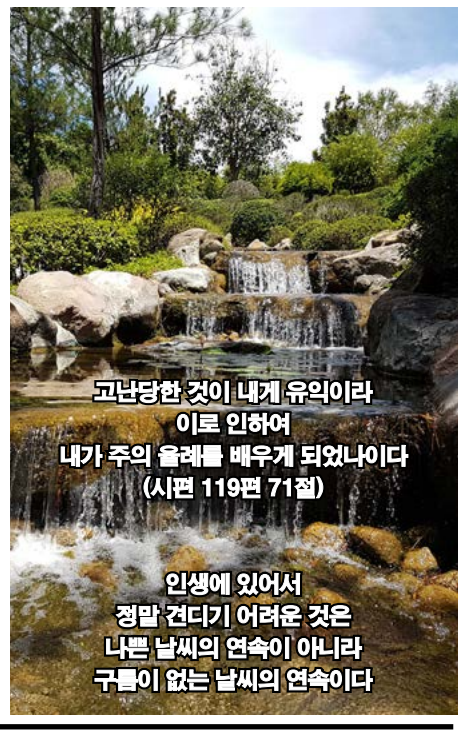
두 번째,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눈앞에 꽃잎이 어른거리는 증세가 있다.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눈이 피로할 때는 향부자 4g, 상심자(오디) 4g을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하루 두 번 차로 마시면, 정신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증진되면서 눈의 피로가 회복되고 건조감과 뻑뻑한 증상도 줄어든다.

세 번째, 평소 피로가 심해지고 눈꺼풀에 힘이 없어 저절로 감기기도 하면서 눈이 피로해질 때는 약국에서 평위산 과립제를 복용하면 소화기능이 호전되며, 감국(국화) 4g을 하루 두 번 차로 마시면 눈이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진다.

네 번째, 간장에 혈액이 부족한 경우 눈이 피곤하고 뻑뻑하여 이물질이 낀 거 같기도 할 때는 구기자 4g, 숙지황 4g을 아침저녁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시면 간장에 혈액이 공급되어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이 회복되며 피로가 줄고 백내장이나 녹내장에도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신양(하체의 양기)이 부족한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서 눈에 피로가 오는데, 이때는 팔미지황환이라는 처방을 사용하여 하체의 양기를 회복시켜서 몸의 미네랄이 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체내의 온기를 높여주는 보약이다. 노년기에 장복하면 어느 보약보다도 눈에 도움이 되고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간은 눈의 피로를 풀고 야맹증을 치료하는 식품으로 이용해 왔다. 여기에는 비타민A와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눈과 함께 빈혈에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눈 건강에 비타민A가 중요한데 치즈, 달걀노른자, 시금치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눈이 자주 피곤하고 불편하다면 위의 건강차 및 식품과 함께 눈 주변의 뼈를 지압해보면 보다 더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눈의 피로와 관련되는 경락인데, 그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주거나 두드려주면 경락의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어 신속히 눈의 피로가 풀릴 것이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눈도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니, 신호가 왔으면 그때가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시기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